

출판중흥 위한 '1천명 · 1천 프로젝트'

출판인들 '서귀포 선언'...

'전문 에디터 · 전문도서 육성으로 출판 인프라 구축'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책문화를 함양하기 위해 전문편집자 1천 명을 육성하고, 공적 지원에 의한 전문도서의 1천 프로젝트를 기획·출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한 출판경영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의 출판문화를 위한 출판인 서귀포 선언'을 통해 이같은 취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이날 150여 명의 출판인들은 선언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총체적 역량을 키워내는 출판이라는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구체적인 구축을 위한 정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판경영자 세미나는 국내 출판경영자들이 모여 출판정보를 교류하고,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하는 모임으

로 올해로 26회를 맞았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출판인 서귀포 선언'은 출판인들 스스로 "이름다운 책 한 권을 만드는 일은 한사코 해내야 할 의무이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권능"임을 자각하고 미래 출판문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자는 의미가 실려 있다. 선언은 이를 위해 ▶책읽기와 책만들기와 책쓰기를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마련 촉구 ▶21세기형 국민복지시설인 공공도서관의 대폭 증설 ▶연구된 지식과 정보와 이론을 책으로 만들어서 공공으로 이용하게 하는 출판기능 보완의 필요성 ▶경제개발계획과 같은 출판문화와 출판산업 발전정책의 국가적 장기정책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길사 김언호 대표(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의 '지식정보시대의 책 만들기과 국가경쟁력' 주제발표, 한양대 국문과 정민 교수의 '한국출판의 비전, 우리 고전의 광맥에서 캔다'라는 제목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 고려대 이남호 교수가 나서 '전자시대의 문화와 독서'에 관한 특강을 했다.

주제발표에서 특히 김언호 대표는 '서귀포 선언'에 입각해 이른바 '1천 명 · 1천 프로젝트'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창조적 상상력'이라 할 수 있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은 한 권의 책 또는 출판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며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사회구성원들의 지식정보는 그 나라의 출판문화에서 비롯된다"며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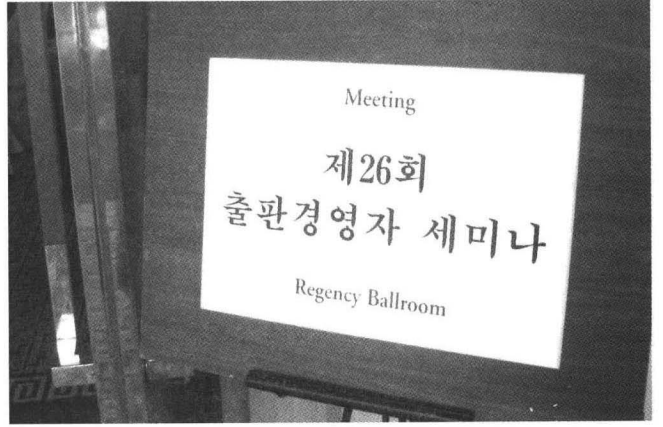
특히 그는 책을 기획하고 제작해 내는 전문 출판편집자의 육성을 우선으로 꼽았다. 김 대표는 "지식정보사회의 구축작업을 민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그 공공적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고 인식해 공적 예산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과학기술자를 육성하듯 편집자를 키우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를 결코 전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국가에 산을 투입해 키운 과학기술자들과 산업엔지니어들이 산업화와 경제적 발전 구축에 헌신한 것처럼 탁월한 문제의식을 가진 전문 출

편집인들을 1천 명 정도 확보하고 이들이 역량을 발휘한다면 '경이적인 풍경이 벌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편집자 1명당 연 3,600만 원(월 300만 원) 지원으로 1년에 360억 원을 예상했다.

특히 프로젝트당 평균 10권씩 구성된 전문도서 기획?출판을 공모하고, 그 중 선택된 기획을 공적 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모에 의한 전문출판이 매년 1천 프로젝트씩 진행될 경우, 한 프로젝트당 20만 원, 연 2,000억 원의 예산 투입으로 1차 10년계획, 2차 10년계획을 시행하면 총 4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특강을 통해 독서형태와 문화현실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이남호 교수는 "전자기술과 상업대중문화의 발달로 독자가 표피적으로 변해 쉽게 다른 읽을거리로 이동하며 얕고 넓게 읽게 되는, 이른바 수평적 독서로 변모했다"며 "불가피한 변화에 적응하는 독자들을 위한 새로운 출판문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고전은 콘텐츠의 보고이며 그 속에 담긴 정보는 무궁무진하다"며 그 정보를 가하는 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독서교육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때 고전을 현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한 출판경영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의 출판문화를 위한 출판인 서귀포 선언'을 통해 천명했다.

대어로 바꿔 정리하면 서구의 어떤 독서이론보다도 훌륭하다는 얘기가. 정 교수는 "고전은 눈높이만 맞추면 지금도 당당히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저자를 발굴하고 길러내는 편집자의 안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민**

글·사진_ 제주 홍이현 기자

우리의 출판문화를 위한 출판인 서귀포 선언

우리 출판인들은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출판이아말로 국가와 사회의 총체적 역량을 키워올리는 문화인프라임을 다시 선언한다. 아름다운 책 한 권을 만드는 일은 한사코 해내야 할 우리들의 의무이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권능이다. 책의 가치와 존엄을 위해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일하고 있는 우리 출판인들은 이 아름다운 서귀포에 모여 소망스런 이땅의 출판문화 창출을 위해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이 지식정보 문명시대에 출판문화와 출판산업은 국가경쟁력을 육성하는 사회문화 인프라라는 차원에서 정당하게 인식되어야 하고 이의 구체적 구축을 위한 정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
2. 앞서가는 국가사회의 대내외 경쟁력은 고급한 지식과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가능하고 이 고급한 지식과 정보는 책읽기와 책만들기와 책쓰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책읽기와 책만들기와 책쓰기를 위해 정부는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3. 고급한 지식과 정보를 담아내는 출판을 기획하고 편집해 낼 수 있는 전문 편집자 1,000명을 육성하자. 이 지식정보 혁명시대에 이들 전문 편집자들은 60년대 이후 우리 국가사회의 공업화와 산업화를 이루어낸 과학기술자 및 엔지니어들과 같은 역할을 해 낼 수 있다.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지식정보혁명을 성취해 낼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들 인력에 의해 우리 사회는 날로 전문화되고 있는 세계의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해 낼 수 있고, 이는 곧 국가경쟁의 동력이 된다.
4. 정부는 공적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라도 학술인문도서와 과학기술도서, 문화예술도서의 출판이 가능하게 해야한다. 정책의 지원을 받는 전문편집자들에 의해 기획되는 고급 콘텐츠가 책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이들 책들은 공적 예산으로 구입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비치되어 국민들이 용이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5. 21세기형 국민복지시설인 공공도서관은 대폭 증설되고 장서와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야 한다. 도서관다운 도서관 없이 고급한 지식과 정보를 담아내는 출판문화는 당초부터 불가능하다. 공공도서관은 국민들의 문화복지 시설이다. 국가와 정부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공급해 줄 의무가 있다.
6. 지식정보 혁명시대에 국가경쟁력이란 책읽고, 책만들고, 책쓰는 국가사회만이 누릴 수 있다. 출판은 국가사회의 여러 장르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국가 사회와 민족공동체와 세계의 모든 것이다. 책읽고, 책만들고, 책쓰는 국가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도 가능하고 수준 높은 과학기술과 예술도 창출되며 국가경쟁력도 확보될 수 있다.
7. 지금까지 정부와 국가는 책을 쓰는 연구자 및 저자에게만 지원을 해왔다. 이제 연구된 지식과 정보와 이론을 책으로 만들어서 공공으로 이용하게 하는 출판기능이 보완되어야 한다. 당초부터 연구성과와 저술의 출판을 체계적으로 기획하는 전문 편집자들의 참여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8. 출판문화와 출판산업의 발전을 키워내는 일련의 정책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출판연관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책을 기획·편집·제작해서 유통시키는 과정은 또 하나의 경제와 산업을 창출한다.
9. 우리의 대내외 국가경쟁을 키워내는 책읽기와 책만들기, 책쓰기를 선진적이고도 획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 장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출판문화와 출판산업 발전정책은 우리의 공업화와 산업화를 가져온 일련의 경제개발계획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흔들림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출판문화와 출판산업은 선진의 나라와 국가를 창출해 내는 필요충분조건이다.

2005년 6월 23일

대한출판문화협회 주최 제26회 출판경영자 세미나 참석 출판인 일동